

세계의 면화 시세 - 계속 갱신 중인 사상 최고값과 전망

1870년에 뉴욕의 정기 시세(定期 時勢)로 면화가 처음 거래되기 시작하였는데, 그로부터 140년이 지난 2010년 초에는 1 파운드에 70 ~ 80 센트(cent)로 거래되는 기근물(期近物 : 賣買에서 주고받는 期限이 짧은 去來)은, 7월 후반부터 갑자기 올라 9월 중순에는 15년 만에 100 센트를 돌파하였고 10월 22일에는 119 센트로 올라 사상 최고치를 눈 깜짝할 사이에 갱신하였다. 그런 다음에도 오르고 있으며 2010년 11월에는 151 센트까지 올랐다. 다음은 2009년에 일본인으로서 처음으로 국제 면화 협회(國際 綿花 協會 : ICA) 이사로 선임된 도요시마(豊島)의 시마자키(島崎) 상무가 앞으로 면화 시세가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전망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최근 2개월 동안에 면화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하여 뉴욕의 면화 정기 시세(綿花 定期 市勢)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시세가 오른 요인은 첫째로 세계적으로 재고가 극히 적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미국 농무성이 발표한 세계 면화 재고는 4년 전인 2007/2008년 면화 년도에 6,266만 짝(bale, 俵, 梱, 고리)이었다. 그것이 2010년도(綿花 年度 2010/2011년)에는 4,220만 짝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테면 각국의 재고를 4년 전과 비교하면 중국은 2,050만 짝에서 1,322만 짝으로 줄어들었고 미국은 1,000만 짝에서 220만 짝으로 줄어들었다.

세계의 면화 공급은 미국이 기본이다. 이러한 미국이 면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 당연히 7월부터 다음 해의 초까지는 면화의 수확이 없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재고가 제로(zero)로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것이 지금 첫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의 면화 소비량을 보면 4년 전에는 전 세계 소비량이 1억 2,300만 짝이었다. 그런데 금융 위기가 있었던 2008/2009 면화 년도에는 1억 1,000만 짝이었으며 2009/2010 면화 년도에는 1억 1,850만 짝이었다. 2010/2011 면화 년도에는 당초에 1억 2,000만 짝이라고 하였는데 중국이 줄임으로써 1억 1,700만 짝이 되었다.

특히 중국의 움직임은 시세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중국 소비량은 2007/2008 면화 년도에 5,100만 짝이었다. 다음 해에는 4,400만 짝으로 줄어들었는데, 다시 2009/2010 면화 년도에는 5,000만 짝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숨이 너무 비싸서 소비량을 줄여서 수정하였다.

중국은 2007/2008 면화 년도에는 1,150만 짝을 수입하였는데, 다음 해인 2008/2009 면화 년도에는 금융 위기로 단숨에 700만 짝까지 줄어들었다. 그것이 2009/2010 면화 년도에는 1,100만 짝을 어디로부터 수입할 것인가가 문제로, 이것이 큰 충격(impact) 요소가 될 것이다.

미국은 2010/2011 면화 년도의 수출 계약 체결이 10월 말까지 1,100만 짝이 되었다. 그 중에 중국이 360만 짝 정도이다. 2010/2011년의 미국 생산량은 1,840만 짝으로, 이 중에서 수출은 1,570만 짝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140만 짝을 팔았기 때문에 숫자로 보면 나머지는 400만 짝밖에 없다. 아직도 9개월이나 남아 있어 크게 부족할 것 같다.

지금 미국은 수출 처리 능력이 없어진 상태이며 창고나 항구는 대혼란 상태이다. 1년 동안에 팔아야 하는 것을 짧은 기한 내에 팔아 넘겨, 2010년 11월 중에 선적을 오더(order)하여도 재고가 없으므로 현지로부터 면화가 출하하려면 2011년 2월쯤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점에서 키-포인트(key-point)는 역시 재고가 적다는 것이다.

또한 미면의 하베스트 프레스(harvest pressure : 수확기의 판매 압력)가 없었다. 다시 말하여 수확기에 농가가 많이 매각하게 되므로 시세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므로 시세가 올라갔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약간 수요가 회복되었다. 그전인 2008/2009 면화 년도의 금융 위기 이후로 1년 동안 재고를 처분하고 있었다. 보통 7월 말에는 시세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짬은 면화를 많이 심을 것으로 보고 시세가 떨어진다. 그런데 미 농무성이 “재고가 없다.”고 발표하자 놀라서 모두 구매하려고 하였다.

중국 국내 시세도 크게 폭등하였으며 특히 신장(新疆) 웨이우얼(維吾爾, 또는 Uighur 위구르) 자치구(自治區)의 일기가 나빠서 생산량도 줄었다. 또한 미국 금융 정책이 완화된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번의 경우 광물이든 곡물이든 모두 비싸졌다. 금이 좋은 예이

다. 달러가 떨어져서 상품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자금이 흐르고 있다.

예컨대 중국인 전체가 한 장에 200 그램(g) 하는 셔츠를 산다면 26만 톤의 면화를 사용하게 된다. 다음에 인도도 소비가 크게 늘고 있다. 이들 중국과 인도를 합치면 25억 명이 되는데, 이들이 T-셔츠 한 장씩만 사도 면화 소비량은 50 톤이 된다. 그런데 의외로 이러한 소비를 빠뜨리기 쉽다.

면화 가격이 1 파운드에 151 센트까지 올랐는데 우선 이 수준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일 것 같으며 크게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으나 20 ~ 30센트 정도는 위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3월 말 기한(期限)(決濟 期限이 3월 말로 끝나는 先物), 5월 말 기한, 7월 말 기한의 계약이 다 되어 있는데, 실체는 정기(定期)로 거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3월 기한은 매우 큰 양(量)이 움직이기 때문에 정기로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한층 더 비싼 점도 있다.

솔직히 현재 얼마가 옳은지는 알 수가 없고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가격은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어디서든 값이 떨어져도 될 만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세가 오르내리는 것에 대하여 ICA는 관계가 없다. 다만 면화 거래 중에 계약 불이행하는 경우가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으며, ICA에 재정(裁定 : 중재자의 판단)요구가 몇 개씩 들어오고 있다.

물론 농가가 불이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면화상 등의 무역상(merchant)이나 방적에서 불이행하는 경우도 있다. ICA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부터 바빠질 것이다.

계약 위반에 대한 조정을 테크니컬 아비트레이션(technical arbitraiton : 專門的 仲裁)이라고 하는데 이 조정은 강제력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오직 하나의 제재 방법으로는 디폴트(default : 不履行)한 사람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이다. 다만 이 리스트에 오른 사람 중에는 이름을 바꾸어 버리는 나쁜 사람도 있다.

일본 국내 시장에서는 면화뿐만이 아니고 면사나 직물도 값이 올랐다. 문제는 그 다음의 제품이 아직 값이 오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제품에 대한 영향은 앞으로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시세는 항상 정상적인 수준보다도 넘치거나 처지거나 한다. 앞으로 값이 오르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은데 세계 경제 정세와 함께 시세가 불규칙하게 오르내리는 것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